

## 4.1. 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 변화 추이<sup>1)</sup>

### □ 2012년 4분기 콘텐츠 업체 수출 동향

-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 '12년 4분기 수출액은 약 3,59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.0% 감소했으며 전분기대비 2.7% 상승
  - '10년 1분기 전분기대비 3.4% 하락 이후 상승기조이며 '11년 1분기부터 큰 폭의 상승이 '12년 1분기 및 2분기에 다소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'12년 3분기 이후 상승하면서 회복세
- 게임 '12년 4분기 수출액은 약 2,16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.3% 감소했으며 전분기대비 4.0% 상승. '12년 1분기 전분기대비 큰 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회복세
  - '12년 4분기 전체 콘텐츠 상장사 수출액 중 비중은 60.4%로 '11년 4분기(69.2%)에 비해 8.8%p 하락
  - 대형업체 중 CJ E&M 게임부문의 '12년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2.1% 증가했으며 기타 대형업체들은 전년동기대비 감소. 이는 스마트게임 및 대형온라인게임 등 대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중국 등 수출 주력시장에서의 성장 정체에 기인. 액토즈소프트는 '12년 2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다소 큰 폭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'12년 4분기는 전년동기대비 28.9% 감소
    - ※ 엔씨소프트의 수출액은 '11년 2분기부터 전년동기대비 감소 추세이며 '12년 4분기는 전년동기대비 32.8% 감소
  - 중소형 업체 중, 컴투스, 게임빌 등 2개 업체는 '11년 4분기 이후 신작 및 다양한 스마트게임들의 흥행에 따른 해외 수요증가로 '12년 4분기 수출액의 경우 높은 전년동기대비 성장 기록

1)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중 콘텐츠산업 관련 업체 85개 선별(게임(20), 지식정보(8), 출판(9), 방송(21), 광고(4), 영화(7), 음악(11), 애니메이션/캐릭터(5)), 단 게임, 방송, 영화, 음악 등 4개 분야에 CJ E&M 중복적용. 자료의 출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에 등록된 기업 보고서

※ 컴투스 및 게임빌은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보급 및 이용 확대 등 스마트게임 등 콘텐츠 수요 인프라 증대와 게임콘텐츠 이용 패러다임 변화로 '11년 1분기 이후 지속적인 큰 폭의 수출증가세. 컴투스 및 게임빌의 '12년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64.3%(192.5%)<sup>2)</sup>, 574.5%(133.5%) 증가

※ 한빛소프트의 '12년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08.4% 증가

- 게임의 수출은 전분기대비 '10년 2분기부터 '11년 4분기까지의 상승세가 '12년 1분기 들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나 '12년 3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회복세. 향후 게임 콘텐츠 소비 패러다임 변화 및 이에 부응하는 스마트기기의 지속 출시 등이 게임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에 완성도와 경쟁력을 보유한 스마트게임 개발사들을 중심으로 해외실적 호조 예상

※ '10년 3분기에서 '12년 3분기까지 전분기대비 각각 2.3% 상승, 12.1% 상승, 5.7% 상승, 5.3% 상승, 2.9% 상승, 55.7% 상승, 19.8% 하락, 9.1% 하락, 2.5% 상승

● 출판 '12년 4분기 수출액은 약 11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.6% 증가했으며, 전분기대비 407.4% 상승

- '12년 4분기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 수출액 비중은 3.3%로 전년동기대비 1.2%p 상승

※ 대교, 능률교육, 예림당, 이퓨처의 '12년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2.7%, 33.3%, 275.0%, 500.0% 증가

- 출판은 '10년 2분기 이후 등락세를 보이다가 '12년 2분기 이후 전분기대비 상승세이며 '12년 4분기는 큰 폭의 상승

● 방송 '12년 4분기 수출액은 약 450.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.1% 증가했으나 전분기대비 12.9% 하락

- '12년 4분기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 수출액 비중은 12.5%로 전년동기대비 3.0%p 상승

※ CJ E&M 방송부분의 '12년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3.6% 증가

※ 초록밤미디어와 팬엔터테인먼트는 독립제작사로서 '12년 4분기 수출액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79.7%, 52.7% 감소

- 방송은 '11년 1분기부터 '11년 4분기까지 전분기대비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

2) 2012년 3분기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성장률

가 '12년 1분기 이후 큰 폭의 상승으로 전환되었으며 '12년 3분기 이후 전분기 대비 하락기조

- 영화 '12년 4분기 수출액은 약 7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6.3%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38.5% 다소 큰 폭 하락
  - '12년 4분기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 수출액 비중은 2.1%로 전년동기대비 1.0%p 상승
    - ※ CJ E&M 영화부문의 '12년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04.3% 증가. 미디어플렉스는 영화투자배급사로서 '12년 2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8.7% 감소
  - 영화는 '11년 2분기부터 전분기대비 상승세를 보이다가 '12년 1분기 이후 다소 큰 폭의 등락세이며 '12년 4분기는 하락
- 음악 '12년 4분기 수출액은 약 57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.8%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3.8% 상승
  - '12년 4분기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 수출액 비중은 15.9%로 전년동기대비 3.2%p 상승
    - ※ SM엔터테인먼트, 소리바다의 '12년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4.8%, 192.9% 증가했으며, 수출액 규모 측면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, YG엔터테인먼트 등이 음악 수출액 전반적인 증가를 견인
  - 음악은 '10년 2분기에서 4분기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, '11년 1분기 이후 '12년 1분기를 제외하고, 전분기대비 상승세가 '12년 4분기까지 지속
- 애니메이션/캐릭터 '12년 4분기 수출액은 약 20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.4% 감소했으며 전분기대비 4.7% 상승
  - '12년 4분기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 수출액 비중은 5.8%로 전년동기대비 0.4%p 상승
  - 애니메이션/캐릭터는 '10년 1분기부터 전분기대비 등락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'12년 4분기는 상승

<표 I-16> '11년 4분기~'12년 4분기 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 변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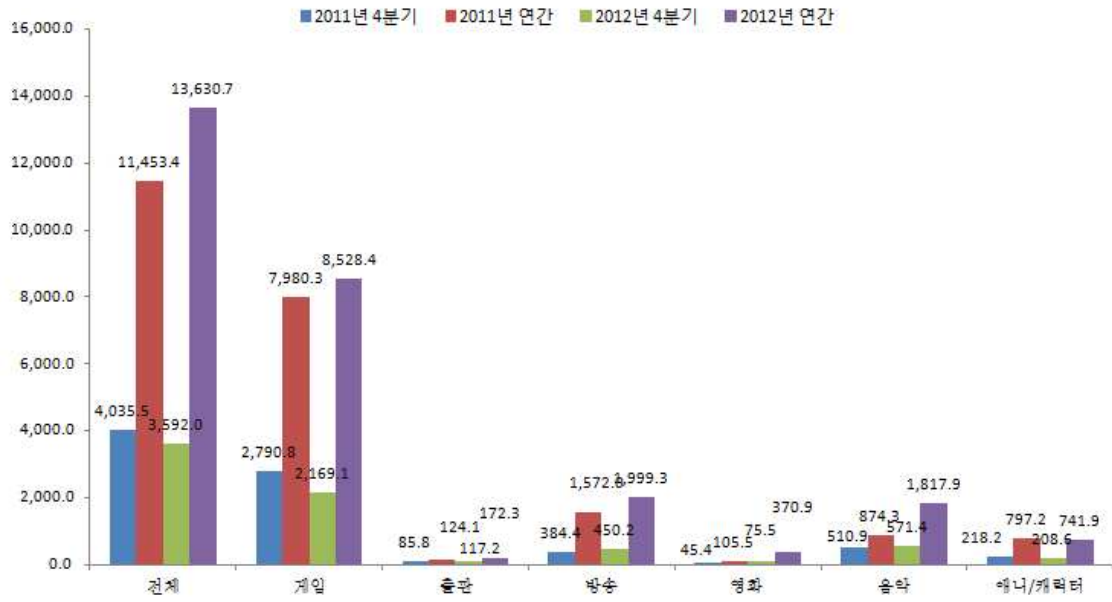
(단위: 억원, %)

구분	2011년		2012년					
	4분기 (전기대비)	2011년 (전년대비)	1분기 (전기대비)	2분기 (전기대비)	3분기 (전기대비)	4분기 (전기대비)	2012년 (전년대비)	4분기 (전년동기)
게임	2,790.8 (55.7%)	7,980.3 (42.2%)	2,237.9 (-19.8%)	2,034.8 (-9.1%)	2,086.6 (2.5%)	2,169.1 (4.0%)	8,528.4 (6.9%)	-22.3%
지식 정보	n/a	n/a	n/a	n/a	n/a	n/a	n/a	n/a
출판	85.8 (472.0%)	124.1 (173.3%)	15.7 (-81.7%)	16.3 (3.8%)	23.1 (41.7%)	117.2 (407.4%)	172.3 (38.8%)	36.6%
방송	384.4 (-16.1%)	1,572.0 (80.3%)	458.9 (19.4%)	573.6 (25.0%)	516.6 (-9.9%)	450.2 (-12.9%)	1,999.3 (27.2%)	17.1%
광고	n/a	n/a	n/a	n/a	n/a	n/a	n/a	n/a
영화	45.4 (41.9%)	105.5 (653.6%)	122.4 (169.6%)	50.2 (-59.0%)	122.8 (144.6%)	75.5 (-38.5%)	370.9 (251.6%)	66.3%
음악	510.9 (191.1%)	874.3 (93.1%)	324.1 (-36.6%)	371.8 (14.7%)	550.6 (48.1%)	571.4 (3.8%)	1,817.9 (107.9%)	11.8%
애니메이션/ 캐릭터	218.2 (15.0%)	797.2 (12.6%)	132.8 (-39.1%)	201.3 (51.6%)	199.2 (-1.0%)	208.6 (4.7%)	741.9 (-6.9%)	-4.4%
합계	4,035.5 (51.5%)	11,453.4 (48.7%)	3,291.8 (-18.4%)	3,248.0 (-1.3%)	3,498.9 (7.7%)	3,592.0 (2.7%)	13,630.7 (19.0%)	-11.0%

- 1) 게임 중 'CJ 인터넷'은 '11년 3월 'CJ E&M'으로 합병됨에 따라 '11년 1분기 이후는 'CJ E&M' 게임부문 수출액을 적용. 'NHN'은 실적보고서상 '11년 1분기부터 수출액 대신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발표해 분석에서 제외
- 2) 지식정보는 산업의 특성상 내수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이 이뤄지므로 수출이 발생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
- 3) 출판 중 '대교', '능률교육', '예림당', '이퓨처' 사업보고서에서 수출 발생
- 4) 방송 중 'CJ오쇼핑', 'CJ E&M', 'SBS콘텐츠허브', 'iMBC', '초록뱀', '팬엔터테인먼트', '삼화네트웍스', '키이스트', '나우콤' 사업보고서에서 수출 발생
- 5) 영화 중 '미디어플렉스', 'CJ E&M', '제이콘텐츠리'에서 수출 발생
- 6) 음악 중 'CJ E&M', 'SM엔터테인먼트', '소리바다', 'JYP엔터테인먼트', 'YG엔터테인먼트'에서 수출 발생
- 7) 애니메이션/캐릭터 중 '코코엔터프라이즈'와 '스텝싸이언스'는 업종변경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. '오로라월드' '11년 4분기 및 '12년 4분기 수출액데이터 부재로 해당년도 3분기 수출액 비중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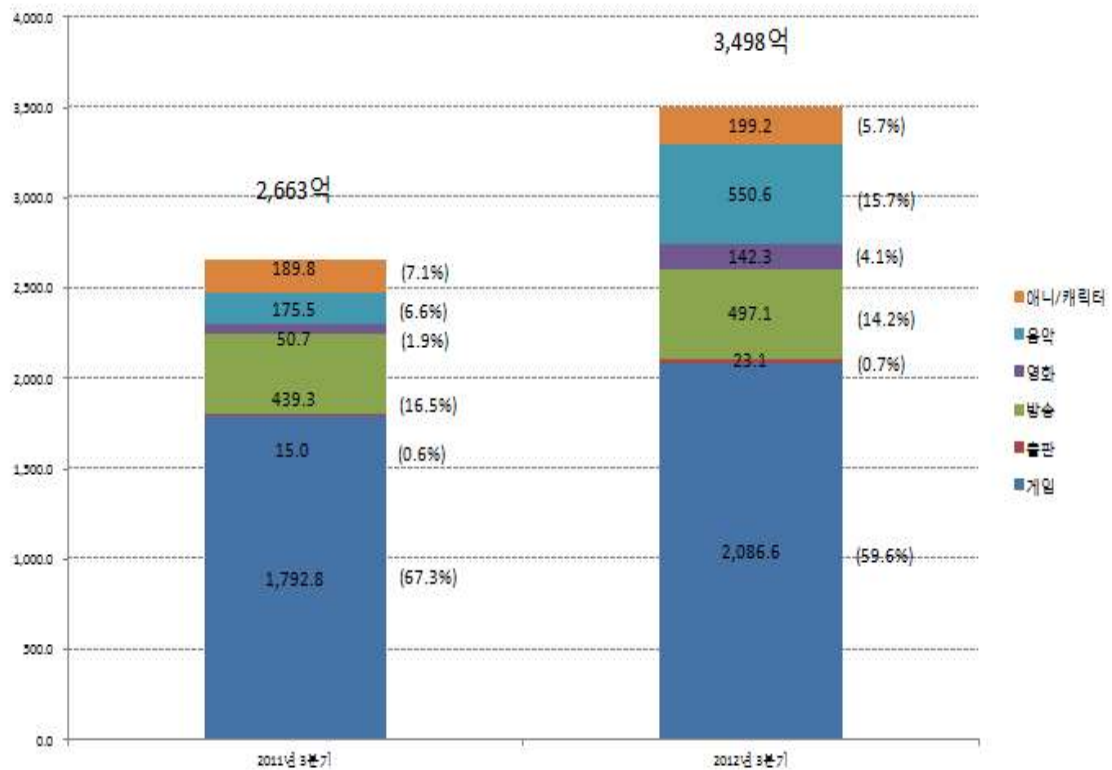
<그림 I-11> '11년 4분기 vs '12년 4분기 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 변동

(단위 : 억원)



<그림 I-12> '11년 4분기 vs '12년 4분기 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 누적

(단위 : 억원)



□ 2012년 연간 콘텐츠 업체 수출 동향

●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 '12년 연간 수출액은 약 1조 3,630억원으로 전년동기

대비 19.0% 증가

- '12년 연간 콘텐츠산업 상장사 수출액 중 애니메이션/캐릭터를 제외하고 전 부문 전년동기대비 증가

※ 게임, 출판, 방송, 영화, 음악 '12년 연간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.9%, 38.8%, 27.2%, 251.6%, 107.9% 증가

- 게임의 '12년 연간 수출액은 '10년 연간 이후 증가세. 음악 및 출판의 수출액은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증가율

※ 게임의 '12년 연간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은 62.6%로 '11년 연간 (69.7%)에 비해 7.1%p 하락. 음악의 '12년 연간 콘텐츠산업 관련 전체 상장사 대비 수출액 비중은 13.3%로 '11년 연간 수출액 대비 5.7%p 상승

<표 I-17> '10년 연간~'12년 연간 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액 변동

(단위: 억원)

구분	2010년		2011년		2012년	
	4분기 (전년동기)	연간 (전년대비)	4분기 (전년동기)	연간 (전년대비)	4분기 (전년동기)	연간 (전년대비)
게임	1,565.6 (8.8%)	5,611.5 (10.4%)	2,790.8 (78.3%)	7,980.3 (42.2%)	2,169.1 (-22.3%)	8,528.4 (6.9%)
지식 정보	n/a	n/a	n/a	n/a	n/a	n/a
출판	15.7 (61.4%)	45.4 (28.8%)	85.8 (446.5%)	124.1 (173.3%)	117.2 (36.6%)	172.3 (38.8%)
방송	258.0 (23.3%)	871.7 (104.0%)	384.4 (49.0%)	1,572.0 (80.3%)	450.2 (17.1%)	1,999.3 (27.2%)
광고	n/a	n/a	n/a	n/a	n/a	n/a
영화	10.4 (-11.0%)	14.0 (-25.8%)	45.4 (336.5%)	105.5 (653.6%)	75.5 (66.3%)	370.9 (251.6%)
음악	32.5 (-47.4%)	452.7 (85.2%)	510.9 (1,472.0%)	874.3 (93.1%)	571.4 (11.8%)	1,817.9 (107.9%)
애니메이션/ 캐릭터	188.4 (41.3%)	707.7 (36.5%)	218.2 (15.8%)	797.2 (12.6%)	208.6 (-4.4%)	741.9 (-6.9%)
합계	2,070.6 (11.0%)	7,703.0 (21.8%)	4,035.5 (94.9%)	11,453.4 (48.7%)	3,592.0 (-11.0%)	13,630.7 (19.0%)

- 1) 게임 중 'CJ 인터넷'은 '11년 3월 'CJ E&M'으로 합병됨에 따라 '10년 4분기까지는 'CJ 인터넷' 및 '11년 1분기 이후는 'CJ E&M' 게임부문 수출액을 적용. 'NHN'은 실적보고서상 '11년 1분기부터 수출액 대신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발표해 분석에서 제외
- 2) 지식정보는 산업의 특성상 내수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이 이뤄지므로 수출이 발생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
- 3) 출판 중 '대교', '능률교육', '예림당', '이퓨처' 사업보고서에서 수출 발생
- 4) 방송 중 'CJ오쇼핑', 'CJ E&M', 'SBS콘텐츠허브', 'iMBC', '초록뱀', '팬엔터테인먼트', '삼화네트웍스', '키이스트', '나우콤' 사업보고서에서 수출 발생
- 5) 영화 중 '미디어플렉스', 'CJ E&M', '제이콘텐츠리'에서 수출 발생
- 6) 음악 중 'CJ E&M', 'SM엔터테인먼트', '소리바다', 'JYP엔터테인먼트', 'YG엔터테인먼트'에서 수출 발생
- 7) 애니메이션/캐릭터 중 '코코엔터프라이즈'와 '스튜디오씨아'는 업종변경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. '오로라월드' '11년 4분기

및 '12년 4분기 수출액데이터 부재로 해당년도 3분기 수출액 비중 적용

<그림 I-13> '11년 연간 vs '12년 연간 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 누적

(단위 : 억원)

